

推 薦 辭

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. 그간의 理念對立에 바탕을 둔 기존의 질서가 와해되고 經濟力을 중심으로 새로운 國際秩序가 태동하고 있습니다. UR 타결에 따른 WTO 체제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環境·技術·公正競爭 등 새로운 과제가 주요 국제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특히 科學技術의 혁신은 우리들 삶의 모습 자체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. 이 모든 변화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까워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情報化社會로의 발전입니다. 우리는 지금 이른바 '제3의 물결'이라는 정보화혁명의 큰 흐름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.

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행정·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수준향상과 효율증진을 가져오고 있으며, 산업분야에서는 생산·유통·관리 등 모든 부문의 자동화·정보화가 촉진되어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.

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能動的으로 대처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며, 情報化는 우리 經濟와 社會는 물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.

세계 각국이 정보화의 촉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

우리나라도 社會 각 분야에 걸친 과감한 情報化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, '80年代를 통해 통신과 放送網 등 정보유통의 기본적인 하부구조를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.

情報産業 分野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의 산업생산과 輸出은 물론 技術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적 산업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세웠습니다.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 기술력이나 생산기반 면에서 세계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.

그러나 우리가 거둔 이 빛나는 成果에도 불구하고,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앞날에는 크게 어려운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
이 분야의 기술혁신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기술발전도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, 이 산업에 대한 후발국의 적극적 참여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던 하드웨어 부문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.

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산업의 새로운 중심분야가 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부문은 아직 유치단계에 머물러

있고, CATV, 위성통신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망의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.

정부는 이 모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, 정보화의 촉진과 그 바탕이 될 정보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 新經濟 5個年 計劃의 일환으로 「국가사회의 정보화 및 정보산업육성전략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이 계획에 따라 대형컴퓨터·ATM교환기·멀티미디어·CATV기기 등에 관한 첨단기술을 적극 개발하고, 특히 2015년까지 약 45조원을 투자하여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을 구축코자 하며 이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「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」를 구성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등 情報處理産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도 대폭 강화하고, 인력양성과 정보처리산업단지 조성, 표준화 등 정보산업기반을 확충할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「情報化促進基本法」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

우리의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앞날을 가능할 이 중요한 시점에 발간되는 이번 「情報産業年鑑」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보산업의 발전에 온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

열번째를 맞는 「情報産業年鑑」의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코리아 헤럴드·內外經濟新聞社, 그리고 한국 전자공업진흥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1994년 10월

商工資源部長官 金 喆 壽